

보도분류	브리핑( ) 보도자료 제공( ✓ )
보도일시	2021. 9. 24.(금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서비스산업유치과
담당	과장 안도현, 담당 전숙현 주무관(032-453-7323)

**“인천경제자유구역 초저온 복합물류기업 본격 투자 가시화”**  
**신항 배후단지 내 초저온 물류센터 건립으로 바이오산업 연관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 확충**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난 2019년 12월 6일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EMP벨스타가 참여한 벨스타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의 투자가 가시화됐다.
- 인천경제청은 벨스타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이 24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인천항만공사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신항 배후단지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초저온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이날 사업추진계약식에는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,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,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,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, EMP 벨스타 이준호 대표 및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.
-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9년 투자유치 당시 EMP 벨스타의 뉴욕 본사를 직접 방문,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는 등 초저온 복합물류센터 건립과 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해 왔다.
- 이번에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벨스타슈퍼프리즈는 향후 3년간 물류센터 건립에 총 4,968억원을 투자, 연간 약 29만톤의 냉동·냉장 화물을 처리하고 약 25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된다.

- 아울러, 벨스타슈퍼프리즈의 물류센터는 전력 대체원으로 인근 한국가스공사에서 폐기하는 LNG 냉열을 활용하는 저탄소 친환경 물류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며,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 중인 송도국제도시 바이오산업클러스터 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초저온 물류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“IFEZ 신항 배후단지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초저온 물류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기업과 인천항만공사에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, 인근 바이오산업 연관 기업들과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협력 하겠다”고 밝혔다.

**- 벨스타슈퍼프리즈 컨소시엄**

: 한국가스공사, (주)한국가스기술공사, EMP벨스타, Belstar SF Holdings, (주)한국초저온

**- 콜드체인 특화구역 내 초저온 물류센터 위치/건축면적/사업기간**

: 인천 신항 배후단지 / 35.4만㎡(총 11층) / '22~'24년